
제1회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일시 1956년12월1일(단기4289년)

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애국가봉창
 4. 식사(의장)
 5. 인사(시장)
 6. 만세삼창
 7. 폐회
-

○간사장 신용석;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1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해 경례

(일동 국기에 경례)

다음에는 애국가 봉창

(일동 애국가 봉창)

다음에는 의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개회사)

여러분 오늘은 규정된바에 의하여 제1회정기회의가 개시되는 날입니다. 지난날 3개월동안에 6회나되는 임시회의를 거듭하여 시민에대한 의원의 의무를 추구하고있든 것입니다. 특히 시정감사의 결과 공무원들이 관행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권이 민권보다 앞선 여러 가지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을 때 공평무사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직무에 충실할 공무원을 요구

하는 심정이 더욱 절실함을 느낀바 있습니다.

과거책임자들의 不察不敏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현임자들만 대상이 되게된데 대하여는 미안한 마음 금할수 없으며 시정에 찬양할바 없었음을 대단히 귀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제위에 대하여는 저간에 있는바 숙지와 열정을 기울여 시의원의 실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신 점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기회의에 상정될 여러 가지 안건중에서도 예산심의권은 의원의 권한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며, 원래 의회가 성립된 이유도 가중한 세금과 부당한 부과금의 징수를 방지하고 시민의 총체적 부담을 덜게하는데 있으니만치 신년도예산심의회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시와 충분한 연구와 토의로써 시민생활에 이익을 초래케 하여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부당한 본의장도 여러분에 추수하면서 참고해서 큰 허물이 없이 지나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써 개인의 명예심과 공명심을 버리고 시민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어 소수의 의견이라도 정당한 것에는 추종한다는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여 겸허의 미덕을 앙양하여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원동지상호간에 가일층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몇마디 말씀으로써 처음 정기회의가 시작되는 이날 개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에는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신용우; 시장을 대리해서 대독하겠습니다.

(인사)

오늘 지방 자치법 제21건에 의한 본회 회의개회에 제하여 몇마디 인사말씀을 들이고저 합니다.

이번 회의로 말씀하면 과거 임시회의와는 달라서 수도 서

울시로서의 웅건한 시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429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정을 받으려는 역사적인 정기회의인 것입니다.

민주행정의 주도적 역할은 견실성있는 예산확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근대국가가 지향하는 복지행정은 시민들을 역경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공공복리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음으로 당시로서는 이러한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저반의 국정감사와 시정감사를 통하여 얻은 이념을 시책면에 구현하는데 주력하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다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만은 4290년도 예산이 예년에 비하여 다소 증액을 보게된 것은 물가지수를 참고한 소치도 있으려니와 수도 서울을 국제문화도시로 부흥재건함과 아울러 150만 시민의 수요에 적응한 복리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불가결한 절대적인 계수로서 실효성있는 예산안을 책정하여 보았습니다.

금번 회기에 심의하게될 안건은 서상예산안건 이외에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국제문화도시 건립을 지향하고 있는 수도 서울의 현실과 장래발전을 전망하시와 소기의 성과를 맺어주시는 우세하신 심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특별하신 협조를 바라옵고 이상으로써 인사에 대합니다.

단기4289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고재봉

○간사장 신용석; 다음에는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다같이 만세삼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 만세삼창)

○간사장 신용석; 이상으로 제1회 정기회 개최식을 폐회하겠습니다.
